

### 제3과 제자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제자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속죄 사역을 마치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병 고침이든, 좋은 가르침이든, 정치적 이익이든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 때문에 연민하셨지만, 정작 군중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군중이 아닌,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주위를 맴도는 군중인지, 아니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1. ( )를 부르신 주님

##### 1) 공생애 기간 중 ( )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의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로 가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38)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 2) 공생애 내내 (\_\_\_\_\_)

제자들을 부르신 후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철저히 훈련 시키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으십니다. 어쩌면 대단히 ‘비능률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왜냐면 전능하신 주님이 정성을 쏟으시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됴됨이나 가능성은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① (\_\_\_\_\_)

부름받은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가 어부들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북쪽의 가난한 낙후 지역이었습니다. 권력이나 재산이나 지적능력을 찾을 수 없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13)

---

→ ‘학문 없는 범인’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부출신 제자들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학문이나 권세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9)

---

→ 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취급했던’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였습니다.

그다음 구절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10~11)

---

→ 세리와 죄인은 동급입니다. 즉 세리는 곧 죄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부르신 제자라는 사람들의 면면은 그다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② ( )

지식이나 권세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됃됨이도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 야고보와 요한: ( )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51~54)

---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마가복음 3:17)

❖ 제자들의 교만: ( )

제자들의 됴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에서는 그들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교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46~48)

---

→ 물론 이때는 아직 훈련이 덜 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도 그들의 자리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24~26)

---

→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실 때입니다. 즉 3년의 공생애 기간동안 수많은 가르침과 예수님의 헌신된 모습을 보고 훈련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누가 크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작은 자가 큰 자’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의 자리다툼은 ‘소양의 문제’ 즉 ‘그들의 됴됨이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 )

무엇보다 제자들의 연약함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여준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 같이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31~35)

---

---

---

그러나 그 밤이 지나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55~56)

---

---

---

그리고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의 됄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 마침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됄됨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 2. 제자들의 ( )

주님께 부름 받은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 1) ( )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

제자들도 그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면서, 사도의 본분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21~22)

---

---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엎포를 놓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29~31)

---

---

이렇듯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 2) ( )

그러나 그 증인의 삶은 절대로 내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의 전제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4~5)

---

→ 주님의 바람도 ‘복음 증거’이고 제자들의 사명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임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3) 오로지 ( )

주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한 일은 바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14)

